무더위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오세요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불교 프로그램 '다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본격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는 7월, 박물관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더위를 이겨내보면 어떨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인 오후 6시부터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을 비롯해 상설전시관 곳곳에서 문화유산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7월에는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 설명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돼 눈길을 끈다.

서화관 불교회화실에는 '조선 왕실의 바람을 듣다: 16세기와 19세기 왕실발원 불화' (7월 26일 오후 7시)라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다. 조각공예관에는 불교조각실의 '백제의 불교조각' (7월 5일 오후 7시)이 진행됐으며, 금속공예실은 '부처의 음성: 불교 범음구의 세계' (7월 12일 오후 7시)라는 주제가 준비돼 있어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세계문화관 인도 · 동남아실에서는 '꽃줄을 든 동자: 로마에서 서역까지' (7월 19일 오후 7시)라는 주제가 준비돼 있다. 이곳에서는 로마 시대 석관을 장식하는 부조에서 유래한 2-3세기 인도 간다라 스투파 장식 부조에 대한

불교 범음구, 반가사유상 등
문화유산 소개 프로그램 눈길
전시 이해 높이는 주제로 구성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시그니쳐 상설 전시관인 사유의 방에서는 국보 '반가사유상' (78 · 83호)들의 소개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7월 26일 오후 6시)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전시실에서는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의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매주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신라와 가야 사람들의 장송의례에 사용되어 고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내세관을 담고 있는 상형 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를 만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시그니쳐 전시실인 사유의 방. 7월 큐레이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달 개관한 세계문화관 그리스 · 로마실에서도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그리스 도기의 종류와 특징' (7월 12일 오후 6시)이라는 주제로 전시 중인 그리스의 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선사고대관 구석기실에서는 '구석기인들의 삶: 구석기인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7월 12일 오후 6시)라는 주제로 구석기 주거 형태에 관한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신라실의 '신라 금관의 제작 기법' (7월 5일 오후 6시)과 백제실의 '고대 금속 선상감의 제작공정과 그 해석' (7월 19일 오후 7시)에서는 고대 금속 유물의 제작 방법에 대하여 보존과학 분야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중근세관 조선2실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7월 26일 오후 7시), 기증관 기증1실의 '책으로 만나는 박물관' (7월 19일 오후 6시) 등의 주제가 준비돼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 공간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과 PDF 형태로 제공한다.

불교문화사업, 대구·경북으로 모인다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9월 14~17일 대구 엑스코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시 등
문화기획전 프로그램들 다채
7월 21일까지 참가업체 모집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전경.

불교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2023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 서관 1홀에서 '대구 · 경북의 불교문화 산업'을 주제로 개최된다.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공식 홈페이지(bexpodg.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에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특별전'이 주제전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신라시대에 찬란히 꽃피운 불교문화의 중심지 대구 · 경북지역의 매력을 선보이는 문화사업전, 기획특별전, 체험 ·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특별전은 지난 4월 개최된 '2023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사업'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입불(入佛)운동'의 단초역할을 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전에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주제로 한 오리지널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다. 또 관람객들이 사업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발원문 기원나무'에 직접 매다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대구 · 경북지역의 전통문화와 불교사상을 담은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사업전도 이번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의 백미다. 섬유 · 금속 · 도자 등을 활용한 불교공예전과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불교예술전, 건축 · 식품 · 차 · 의복 · 문화상품 등을 볼 수 있는 불교문화전은 관람객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과 감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구 무형문화제전수교육관 소속 장인들(조각장 · 소목장 · 창호장 등)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장인의 공방전'과 대구 · 경북지역 문화콘텐츠 및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지자체 특별전'도 관람객의 기대를 모은다.

한편, 2023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불교신문과 BBS불교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 경상북도 · 대구시 등이 후원한다. 이번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참가를 원하는 업체 및 사찰은 홈페이지(bexpodg.kr)에서 참가신청 자료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9월 3일까지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문화사업단, 전통사찰순례 2차 회향

7월 3일 증서 수여식… 총 36명 회향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7월 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한국전통사찰순례 2차 회향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회향 증서는 문화사업단에서 발간한 전통사찰 순례 책자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방문하고, 해당 사찰의 인장을 모두 찍으면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총 36명의 완주자 중 17명이 수여식에 참석했다. 완주자들에게는 회향증서와 템플스테이 체험권, 기념품 등이 전달됐다.

회향 증서 수여자인 김세연 씨는 "힘든 마음에 사찰을 찾았는데 처음 보는 거사께서 관음성지 순례를 제의"했으며 "8개월간의 기도정진을 하면서 33관음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 벅찬 순간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민 씨 가족은 가족이 모두 순례에 참여하고 원만회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씨는 "가족들과 등산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찰과 친해졌다. 이번 33관음성지순례도 가족들과 함께 다녔고, 사찰마다 108배를 했다. 아이에게 부모가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을 대신해 회향증서를 수여한 템플스테이 홍보관 부관장 영조 스님은 "순례 회향의 길이 수행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귀한 시간을 내서 33관음성지를 끝까지 순례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10돌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 기념연주회

7월 14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서

불음으로 포교하는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연주회를 개최한다.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단장 윤은정)은 7월 14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 10주년 기념연주회'를 개최한다.

기념연주회 1부에서는 둥근소리합창단이 '연꽃법당', '청산은 나를 보고', '바라밀', '복의 씨앗을 뿌려'를 선보이고, 소프라노 황상미가 초청공연으로 '해조음소리', '거위의 꿈', '오! 솔레미오'를 부른다.

2부에서는 둥근소리합창단이 '꿈을 꾼다', '바람의 노래', '바램'을 선보이고, 성악앙상블 퀸스틀러가 초청공연으로 '마중', '향수', '라라라'를 부른다.

마지막 3부에서는 둥근소리합창단이 '보라빛 엽서',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보약같은 친구', '당신이 좋아'를 선보이고, 특별무대로 3대가 함께하는 가족합창단이 '비둘기집', '사랑으로'를 부른다. 청량사 회주 지현 스님은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이 형체 없이 불어오는 뜨거운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처럼 나의 마음과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부처님의 가피를 심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며 "10년의 시간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이제 세상 밖으로 자라려하는 우리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불교음악원, 신작 찬불가 작사부문 공모

오는 7월 24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찬불가 발굴과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신작 찬불가 공모를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관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제10회 신작 찬불가 공모는 작사 부문과 작곡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작사 부문은 오는 7월 24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받는다.

응시자들은 의식 · 생활 · 어린이찬불가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노랫말은 불교를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으며 한문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과 불교사상 및 가르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접수는 우체국 등기나 이메일(cobm010@gmail.com)을 통해 받으며, 접수된 작품들은 대중성 · 충실성 ·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조계종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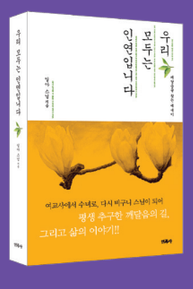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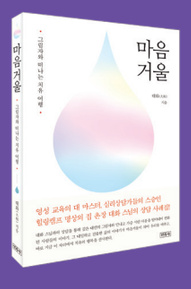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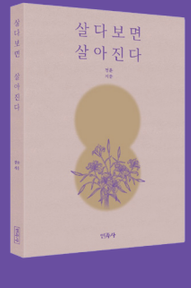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